

## 대만, 신형전투기 개발 계획 발표

대만은 항공방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3세대형 전투기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중령 국방부장에 따르면, 국방부가 중산과학기술연구소에 이 전투기의 개발을 지시했다고 보도하고 “기존 IDF 전투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미국의 F-22 전투기보다 성능이 뛰어난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국방부장은 그러나 이 전투기의 개발이 언제부터 시작될지, 또 이 전투기가 몇 대나 생산될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장부장은 또한 대만은 자체 생산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해외로부터 잠수함을 구매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은 F-16제작업체인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합작으로 IDF전투기를 개발했는데 이 전투기는 엔진이 약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F-16과 맞먹는 성능을 가진 요격기이다.

대만은 항공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F-16전투기 1백50대와 프랑스 제 미라주 2000-5 전투기 60대를 주문하는 한편 1백30대의 IDF 전투기를 생산중인데 이들 전투기는 대만의 2세대형 전투기

로 분류되고 있다.

## 러시아, 대 중국 무기판매 재고

러시아의 대 중국 무기판매가 당초 계획과는 달리 전투기, 선박 그리고 미사일 등의 종류와 가격등에서 의견을 달리해 마찰을 빚고 있다.

몇몇의 주요 무기 구매상들은 현재 러시아측과 가격협상이 마무리 되지못해 지연되고 있다고 중국측 소식통은 전했다. 중국은 시스템의 신뢰도와 판매후 지원 등을 우려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무기판매의 대가로 현금 지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서방측 소식통에 의하면 러시아의 무기상인 로스브로제니(Rosvooruzheniye) 무기수출회사와 러시아 정부간 대 중국판매 무기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러시아 정부는 로스브로제니사의 무기수출을 조정할수 없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중국 고위관리들은 최근 러시아 무기제조회사를 방문한바 있다.

중국은 현재 우선적으로 약 55대 수호이(Sokhoi)사의 Su-30 다목적 전투기와 공대공미사일인 빔펠(Vympel) R-77과 제즈다 스테렐라(Zezda Strela) Kh-

31A 함정요격 미사일 등의 수입을 놓고 협상중이다.

중국은 우크라이나로부터 기수입한 50대의 Su-27CK/UBK의 예비부품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중 8대의 기종이 태풍으로 심각하게 파손됐고, 2대가 추락하였다. 중국공군측은 추락원인을 엔진결함과 적은 오버홀시간으로 추정하고 있다.

러시아는 현재 중국과 8억달러 상당의 유도미사일 협상을 벌이면서 금액지급을 서둘러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와함께 2대의 함정과 지대지미사일의 구매협상에서도 제작단계에서의 금액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인도후 지급을 고집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러시아 전투기 5억 달러 상당 구매

인도네시아와 러시아는 인도네시아가 구상무역을 통해 5억 달러 상당의 러시아제 수호이 제트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구매하는데 합의했다.

인도네시아의 지난차르 카르타사스미타 국가개발계획 담당 국무장관은 이 같은 합의가 지난달 말 모스크바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러시아로부터 총 5억 달러에 달하는 수호이

제트 전투기 12대와 헬리콥터 8대를 구입하는 대신 러시아가 이에 해당하는 가격의 인도네시아 산 물품을 사들이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가 러시아에 제공할 상품은 고무, 직물, 야자유, 전자제품과 국민차 티모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관리들은 러시아제 수호이 전투기 1차 분이 내년 초 인도될 것으로 보고있다.

### 拂 다소, 대만과의 관계지속

프랑스의 다소(Dassault)사는 프랑스정부의 대만 무기판매의 중지를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가능한 많은 전투기를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소사 기라드 부사장은 "우리는 현재 대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미래에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미래의 프랑스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며 새롭게 대만에 진출하는 것 보다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까지 다소사는 대만공군에 미라지(Mirage) 2000-5 전투기 60대를 인도하였다. 이 때문에 중국은 프랑스에 대만과의 무기판매를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프랑스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

이를 수용하였다. 다소사는 또 다른 60대의 미라지 전투기를 대만에 수출할 예정이었으나 이로 인해 수출이 불가능해졌다.

사실 대만공군은 미국과 유럽이 개발할 제5세대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다소사측은 "대만공군이 미래를 대비, 차세대 전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라팔(Rafale) 전투기에 대해서도 흥미를 갖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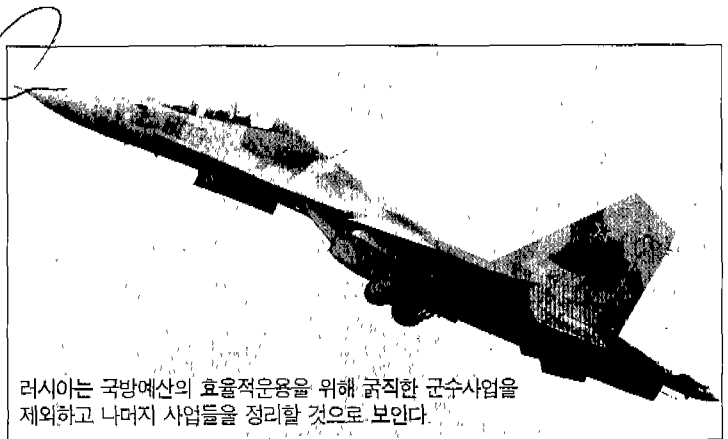
### 러시아, 국방프로젝트 선별추진 전투기/헬기 각1개 기종씩 선정키로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9월 초, 주요 국방프로젝트를 심도있게 추진키위해 부차적인 프로젝트는 과감히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러시아 국방장관부장인 시트노프 부장은 공격형헬기사업에는 밀(Mil)설계국의 Mi-28N이나

카모프(Kamov)사의 Ka-52중 1개가 선정될 것이라고 말하고 전천후 공격능력을 충분히 갖춘 기종이 선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투볼레프(Tupolev)사의 Tu-160 장거리 전략공격기는 곧 퇴역될 것이며 5대의 핵폭격기도 지상에 묶여져있다. 그러나 수호이(Sokhoi)사 Su-27IB(Su-34)는 Su-24를 대체하기위해 계속 개발할 것이라고 시트노프 부장은 말했다.

현재 수호이사와 MAPO사는 Su-27 및 MI-29 전투기를 대체할 제5세대 전투기를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MAPO사는 아티클(Article) 1.42를 개발, 올해 말 첫선을 보일예정인데 약 35톤급의 전투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호이사는 전진익 모양의 S-32(Su-37의 재설계형)을 선보이고 있다. 러시아 공군은 이들 2개기종은 1개기종을 제5세대 대형 전투기로 선정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국방예산의 효율적운용을 위해 굵직한 군수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들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